



곤을동의 봄 풍경 제주시 화북동 '잃어버린 마을 곤을동'에 봄이 내려앉았다. 제주4·3 당시 곤을동은 불탔고 동네 사람들은 모두 죽임을 당했다. 초토화되었다. 아픈 진실만이 오랜 시간 마을을 지켰고, 그럼에도 봄이므로 풍경이 된다. / 사진 이창훈

“새정부 출범 전 제주현안 국정과제 반영 총력 다해야”

제403회 임시회 개회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사실 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 22일 제1차 본 회의를 시작으로 3월 30일까지 열린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월 22일 오후 3시 열린 제403회 임시 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들을 국정과제 에 반영시키는데 도정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 을 이끌어 나갈 제20대 대통령이 선 출됐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께는 축하 인사를 드리며 도민들이 바라는 미래 제주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인의 제주지역 공약은 물론 국가사업으로 포함시켜야 할 추가 정책들에 대해서 대응 TF팀을 구성해 대통령 인수위원회 활동은 물론 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 인수위 업무보고 단

게서부터 긴밀한 협조를 얻어내고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지면 안내

제403회 임시회 개회 ▶ 2



주요 이슈 ▶ 3

함께 합시다 ▶ 10~11

사무처 소식 ▶ 12

“제주칼호텔 고용 승계 없는 민간 매각 추진 유감”



제403회 임시회 개회사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3월 22일 오후 3시 열린 제403회 임시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새정부 출범 전 지역의 현안들을 국정과제에 반영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최근 제주에서 빚어진 현안 가운데 제주도정과 제주도교육청이 해야 할 일들을 주문했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 등 제

주도정을 향해 “이와 더불어 도민사회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남수 의장은 “최근 제주칼호텔 매각과 관련해 100명이 넘는 도민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었다”며, “고용 승계 없는 민간 매각 추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칼호텔 매각 추진을 특정 기업의 특수한 사례로만 볼 수 없어 우려가 크다”며, “그동안 제주는 고용 창

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으로 각종 특례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많은 기업들을 투자 유치해오고 있다. 향후 고용승계 없는 매각 사례가 발생해 하루 아침에 도민 일자리를 대거 잃게 된다면 제주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다.

좌남수 의장은 “단지 민간기업의 노사문제로만 치부해선 안 될 것이고, 사례가 반복되서도 안 될 것”이라며, “도민 생계가 달려있는 만큼 최우선으로 민생을 생각해 도가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행정의 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요즘 농민들의 한숨과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비료 가격차 보전제도가 마련된 만큼 제주의 농촌 현실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도내 농가들에게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정부 교섭은 물론 제주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좌남수 의장은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문제를 두고 조례 개정만

이 능사가 아니라고 꼬집었다.

좌 의장은 “농업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인 데다가 요금 징수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조차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요금부터 부과하겠다는 건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며, “기반 시설부터 준비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순서로 가야 할 것”을 주문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어 이석문 제주도 교육감을 향해 “연초 신학기 시작 보름 만에 코로나 확진 학생이 5배나 폭증하고 등교 중지 학생도 7,000명이 넘어가고 있으며 교직원 확진도 늘어나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업 인력과 방역 인력 지원에 있어 한 치의 소홀함 없는 철저한 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학교 업무 이관에 있어서도 적절한 인력을 배치해 원만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해 누구나 행복한 제주교육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계의 상호 협조적인 문화 조성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종합대상’

기관부문 2년 연속 수상 쾌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좌남수 의장)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기관부문 ‘종합대상’을, 개인부문 ‘최고의원상’에는 송창권 의원이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 미래 제주를 위한 정책대안 제시 등 역동적인 의정활동과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종합대상’에

선정됐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사회의 안전망 확보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대안 제안과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전개했으며, 제주4·3 관련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 등 왕성한 활동을 수행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고, 특히 제11대 임기를 얼마 남겨 놓지 않고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상식은 3월 24일 서울 공군호텔(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민생당 비례대표 박은경 의원 승계

도선관위, 승계자 결정 통보

박은경 의원(사진·민생당, 비례대표)이 지난 2월 18일 한영진 의원의 탈당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2월 21

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결원 사실을 통보했으며, 도선관위는 2월 23일 의식승계자로 박은경 의원을 결정해 통보해왔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이 결원이 생긴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식승계자를 결정하게 되어 있다.

박은경 의원은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를 졸업하고 제주관광대학교 겸임교수와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



송창권 의원 개인부문 ‘최고의원상’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 이호, 도두동)이 3월 24일 서울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16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에서 개인부문 ‘최고의원상’을 수상했다.

최고의원상을 수상하게 된 송창권 의원은 제주의 지속가능한 개발과 친환경 정책을 발굴함은 물론 교육, 복지,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60여 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한 활발한 입법활동을 전개하여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주의 현안인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지역갈등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청정 제주를 지속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환경보전기여금 정책 도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지난 2007년부터 전국 기초 및 광역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의회조직 활동의 총체적 성과와 지역발전 기여도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여 수상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권위 있는 상으로 올해 16회째를 맞고 있다.



제4회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 우수상

박호형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갑)이 거버넌스센터가 주최한 2022 제4회 거버넌스지방정치대상 시상식에서 ‘팬데믹 시대 제주관광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전략, 웰니스관광거버넌스 구축’으로 사회경제활력 증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박호형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심신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지친 도민들

을 위로할 대응전략 마련으로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을 통하여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침을 마련했으며, 민·관·학 거버넌스 구축을 이뤄내면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박호형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웰니스 관광 육성 조례’를 전국 최초로 대표 발의하면서 웰니스 관광협의체 구성, 웰니스 관광 인증제 도입 등 제주형 웰니스 관광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제도개선, 권역별 클러스터 구축 등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광역자치단체 의정부문 ‘최우수상’ 수상

홍명환 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이 2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주관 제1회 WFPL 7대지자체혁신평가 대상 최종 심사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홍명환 의원은 지자체혁신평가 자료 중 지역 예산의 과다 책정 방지 및 불필요한 세금 낭비 방지 대책 부문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대한 조례’ 제정 및 도의회 예산심사 권한을 통한 예산 퍼주기 논란, 예산 조정 등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안 등의 의정활동 공로가 인정되었으며, 또한 제2공항 추진에 따른 도민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활동 및 영리병원 설립 중단 요구 등 제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활동, 지난해 7월에 발생한 중학생 피살사건에 따른 재발 방지를 위한 지자체 시설물(CCTV 구축 및 임시거주시설 등) 활용 제안 등의 활동이 인정됐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최우수상

오영희 의원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2020-2021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의정활동 우수사례 공모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 2010년부터 전국 여성 지방의원 의정활동 우수사례에 대해 시상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참여에 대한 긍정적 여론 형성과 우수 의정활동 사례 공유·전파를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현장 중심의 조례 제·

개정 19건 등 의원연구단체 제주미래관광성장포럼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결핵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감염병 질환관리 강화에 노력해 전국 최초로 결핵전문 결핵관리협회 전문진료소 개원을 추진한 공로다.

또한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해 산불방지 지원과 학교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 및 생물권보존지역으로서 산림 관련 입법과 생태환경을 위한 자전거 활성화 등 다각도 의정활동을 통한 제주환경사랑을 실천했다.



“메타버스 전환 가속화, 제주도 선제적 대응 나서야”

‘메타버스와 제주의 미래’
2월 25일 정책토론회 개최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과 이상봉 행정자치위원장은 2월 25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메타버스와 제주의 미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 LG전자 PC연구실 엔지니어 출신인 인사이트컨설팅 양성길 대표가 메타버스의 의미 및 활용,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활용사례, 그리고 제주에서 메타버스의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또 메타버스와 제주 미래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진행됐다.

김용범 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의 일상과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많은 영역에서 비대면을 통한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가상과 현실이 결합해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제공하는 메타버스 시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



회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봉 위원장도 “메타버스의 미래는 다양하며, 비대면 사회 확산에 따라 기존의 대면·밀집 관계를 메타버스 방식으로 흡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의 온라인 생태계를 대체하는 지배적 플랫폼이 되어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 제주도 변화된 시대 흐름에 맞춰 메타버스의 여러 가능성들이 안전하게 시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 근거 마련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해당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이 대표발의했으며, 폭염에 대한 대책 및 주민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폭염’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폭염대응 중

합대책에 따라 상황관리 및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저감시설 사업 등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 주요 조문 내용을 보면, 안 제4조는 매년 도단위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폭염 관련 상황 및 대응체계 구축, 무더위쉼터 및 폭염저감시설 확충 계획,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한 실태조사(안 제5조) 실시도 명시하고 있다. 안 제7조에서는 재난도우미를 지역자율방재단원, 노인돌봄 등 전담 수행인력, 관련 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해 폭염특보(최고기온 35℃ 이상) 발령 시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열성 도로포장, 안개형 냉각수 시스템, 그늘막 설치 등 폭염 저감시설 등 폭염 저감시설 설치도 명문화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제주도가 아직까지는 여름철 폭염 일수가 20일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적은 편이나 지속적으로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현재 도에서도 관련 법령에 따

라 폭염대책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앞으로 예측 가능한 재난으로서 체계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본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기후위기 선도적 대응, 기본 조례 시급 제정 필요”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익)는 3월 3일 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동주 박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는 “그간 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역할은 부차적이었다”면서, “제주도가 기후위기에 선도적이고 중심적 역할을 담아낼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본 조례가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향후 30년간 추진할 탄소중립 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5년 단위로 탄소중립 이행계획과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수립·변경하고 이를 지방탄소중립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 등에 제출해야 한다.

이날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도 조례안

에는 해당 법안 내용 가운데 도 조례에 위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 시 제주도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지역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과 기후위기가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 예산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담도록 했다. 연도별 목표와 연

차별 시행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50명 이내로 제시했다. 위원은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해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제주도 재정 운용에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더불어민주당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제주도는 탄소중립 실현에 보다 더 주도적 역할을 해내야 한다”면서, “탄소중립 기본 조례안이 그 밑그림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문화예술 활동 촉진, 도민 삶의 질 향상 기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가 3월 10일 의사당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도내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현황과 활성화 조례안에 필요한 시책, 그리고 육성 발전전략을 모색했다.

제주도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근거해 문화예술 정책을 펴고 있고, 문화예술 정책에 사진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진의 예술성·역사성·기록성으로 모든 예술 장르와 연결되고 최근 디지털콘텐츠 및 자료의 기록 측면에 그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지만 문화예술 정책과 지원에서 사진예술정책은 간과되어왔다.

간담회에서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창훈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은 “이번 조례를 근거로 관련기관·행정·단체 모두 협조해 제주도 사진문화예술과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대해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문창호 작가는 조례와 함께 사진작가들의 창작공간과 단체 사무실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서재철 자연사랑미술관 관장은 제주도에 국제사진전이나 국제사진축제, 권위 있는 국제사진상 등 국제 사진비엔

날레를 제안했으며, 양숙연 한라대학교 방송영상학과 교수는 프랑스 아를 사진 축제(Rencontres Photographiques)를 소개하며 국제사진작가교류사업을 통해 현대사진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강성균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시되었던 의견들을 종합해 ‘제주특별자치도 사진문화예술 및 사진문화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고 제403회 임시회에 발의하겠다”며, “앞으로 사진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사진문화

예술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의료진 연수생 간담회



제14차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의료진 연수생들이 3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찾았다.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 오영희 의원)은 이날 연수생들과 함께 간담회

를 개최하고, 캄보디아 의료 전문가 역량 강화, 캄보디아 및 동남아 국가 의료환경 개선, 캄보디아 신규 로타리 조직 구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 참석 연수생들은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높은 의료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과거에 받은 혜택을 다

시 필요한 국가에 되돌려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과 대한민국이 지난 2010년 라오스에 한국 의료시스템 구축을 지원한 것, 그리고 국제로타리 3640지구 서울한수 로타리클럽도 미얀마 의사 20여 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미얀마 의료발전에 기여한 사례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오영희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들은 최근의 코로나19 상황에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절실하며,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연수생의 지역사회봉사가 더욱 장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방문이 지역사회에 의료연수의 영향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사지 말고 동물보호센터서 입양하세요”

유기동물 입양 홍보활동

농수축경제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들은 2월 24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보호센터를 방문, 광역의회 의원으로는 전국 최초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대사로 나섰다.

이날 방문은 지난 2월 14일 제주도의 회 제402회 임시회 현장방문 당시 제주의 유기·유실동물의 현황보고에서 현재 동물보호센터에 입소되는 유기·유실동물이 2018년 7,979마리에서 2021년 5,697마리로 28.6% 감소했으나, 유기동물 입양률은 2018년 12.6%에서 2021년 16.6%로 7.1%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입소되는 동물의 48.7%인 2,776마리가 안락사로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상임위 의원들 스스로 최소한의 동물복지 실현과 유기·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모아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반려인 교육을 시작으로 의원과 유기동물 1대 1 지정하기, 애칭 지어주기, 교감하기, 반려동물 입양 활성화 홍보



시간 갖기 순으로 진행됐으며, 의원들은 지정된 반려견의 입양 활성화 홍보 사진과 동영상을 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리고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되며, 지정된 유기동물은 일반에 입양이 된 후에도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고받게 된다.

현길호 위원장은 조천읍에서 구조되어 입소된 1살 허스키를 지정하고는 “어릴 적 키우던 풀망이라는 반려견이 있었는데 그 시절 풀망이와 많이 닮아

그때의 추억들이 생각난다”며, “풀망이”라는 애칭을 지어주었다.

임정은 부위원장은 표선면에서 구조된 믹스견을 ‘산타’로, 강성균 의원은 성산을 고성리에서 구조된 믹스견을 달처럼 빛나라는 뜻의 ‘달이’로, 고태순 의원은 태어난 지 4개월 된 강아지를 곱다는 뜻의 ‘고아라’로, 김경미 의원은 한림읍에서 구조된 8살 말티즈를 ‘삼봉이’로, 김용범 의원은 순하게 살이라는 의미로 ‘순돌이’, 송영훈 의원은 제주

대표과일 귤을 상징한다며 ‘귤돌이’라는 애칭을 지어주고 서로 교감의 시간을 갖는 등 유기동물 입양 홍보대사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현길호 위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반려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나 반려동물에 관심 있는 도민들은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유기동물 입양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우리 상임위에서도 반려동물 선진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나가겠다”고 말했다.

“원활한 폐교 재산·기록물 관리 위해 조례 개정한다”

농어촌 지역 문화공간 제공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폐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원활한 폐교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관련 조문을 수정·보완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다.

조례 내용은 조례 용어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알맞게 수정했고(안 제2조),

도교육감의 책무를 보완하는 제2항 교육적·사료적 가치가 높은 폐교재산·폐교 기록물 및 자료 등을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노력 내용을 신설했으며(안 제3조), 대부 매각 등을 수정 보완했고(안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내용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정보완(안 제8조)했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폐교 등 유휴공간 문화 재생 및 문화관광 자원화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제주도내 폐교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폐교 유휴시설물을 활용해 농어촌지역 주민의 문화공간 서비스 제공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휴시설물 활용 공간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도출했다.

조례는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강시백·임정은·고태순·부공남·송창권·문종태·김대진·문경운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대학생의 지방자치 역량 향상, 참여와 관심 유도

“의회의 다양한 업무 분야 체험”



강유정 제주한라대학교
국제경영학과

저는 총무담당관실에 배치되어 근무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는 일이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야 하는 성격인 저에게는 너무 지루하여 인턴 신청한 것을 조금은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 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 부속실에 대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나도 저런 비

서 같은 일을 한 번쯤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고, 처음 하는 일이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했지만, 한편으론 도의회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너무 좋았습니다. 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 부속실에서 대직을 하면서 많이 서툴지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셔서 걱정 없이 수월하게 근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 부속실에서 대직을 하면서 다른 직원분을 통해 이 일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떤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오는지 등에 대해 취업 준비를 위해 알게 된 것이 엄청 많았고, 주변 직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인턴 끝나는 날까지 힘내고 끝까지 근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턴 대상으로 본회의 참관 기회가 생겨 2월 8일 1차 회의와 2월 17일 2차 회의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지루했지만, 2차 회의 때는 처장님, 위원장님, 의원님 부속실에서 대직을 하면서 조금씩 알게 된 내용들을 머릿속에 넣어두고 참관을 하니 1차 회의 때보다는 더 재미있고 관심

을 두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인턴을 하면서 도의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총무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공무원에 도전해 볼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2월 한 달이 짧다고 느낄 정도로 너무 유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기회 만들어주시면 주변 분들에게 좋은 경험 이니까 한번 도전해 보라고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끝으로 인턴 체험의 기회를 주시고 즐겁게 근무할 수 있게 도와주신 도의회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정책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 필요”



김예진 제주대 행정학과

제주도의회 인턴은 나에게 소중한 경험으로 남을 것 같다. 도의회의 여러 의정활동과 정책 입법 관련 일을 체험한다는 것

이 쉽게 주어지는 기회는 아닌데, 이번 대학생 인턴 체험활동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다. 또 연구팀 실무보조의 과정에서 제주 현안의 문제들과 제주특별법, 지방재정과 관련한 정보를 많이 배울 수 있

어 큰 도움이 되었다. 정책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해도를 겸비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였다. 대학생 인턴 활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가서도 전공을 살려 행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학습을 진행하고자 한다. 인턴 활동을 하며 실제 본회의에 참관하고, 실무자분들과 소통했던 경험은 후에 공직생활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사실 도의회 안에서 일하며 의회의 운영 시스템을 어깨너머로라도 보고 배우는 것 자체가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기에, 공직을 희망하는 나에게 좋은 동기부여가 되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들이 잘 활용되어서,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제주특별법 중요성 이해하는 계기”



변정운 제주대 행정학과

중·고등학생 때부터 정치나 행정에 관심이 많다 보니 의정 체험이나 모의의회 경연대회 등 도의회에서 열리는 행사에 많이 참여했고, 그래서인지 이번에 인턴으로 도의회에 올 때도 의회가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정책입법담당관실에 배정받고, 안에서 일할수록 사뭇 내가 생각했던 의회와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정책을 연구하고, 재정을 분석하는 부서가 의회 안에 따로 존재할 것이라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입법정책 담당 부서도, 법제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 역시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도의

원들이 알아서 준비하고 정책을 발안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행정학과에 재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단순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라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또한 의회 인턴으로 짧게나마 활동하면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제주특별법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제주특별법의 중요도와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 대학으로 돌아가면 이 부분을 더 깊게 공부해보려고 한다.

나는 단순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민을 위해, 제주를 위해 고민하고 행동하는 주체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다. 다음에 공직에 들어가게 된다면,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던 것들을 의회에 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행정학과뿐만 아니라 공직을 희망하는 다른 학생들도 이런 시간을 가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의사팀과 기록팀 업무 배울 수 있는 기회”



홍다연 제주관광대학교
리조트커지노경영학과

교수님의 추천으로 도의회에서 방학 동안 의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인턴을 채용한다고 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이 공무원 계열이 아니어서 처음엔 잘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도 했었지만, 담당 부서의 많은 분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인턴 체험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

셔서 지금 이 소감문까지 적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의사담당관이라는 부서명을 들었을 땐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들어가 보니 의사담당관 안에는 기록팀과 의사팀으로 나누어져 제가 있게 된 의사팀에서는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과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사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등 다양한 의사업무를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 자리가 기록팀과 가까운 자리에 앉게 되어 기록팀의 업무도 조

금씩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회의를 참관하며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모든 말들을 기록하는 서기라는 이름의 직무를 알게 되었고, 속기사분들이 쓰는 키보드를 보고 신기해서 한동안 계속 쳐다보았습니다. 의사담당관에서 인턴체험을 하며 부서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의사팀, 기록팀 나누지 않고 모든 직원분이 제 나이가 훨씬 어린데도 불구하고 항상 먼저 말 걸어주시고, 뭐든 챙겨주려고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창인 지금 인턴 활동 중

확진이 되어 집에서 자가격리를 하게 되었는데 인턴 활동은 어떻게 되는 건지 걱정되던 상황에 저를 담당해주시던 직원분들께서 연락해주시며 복무 처리에 관해 설명해주시고 걱정해주셔서 인턴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격리가 풀려 인턴 활동 마무리라도 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되었고, 이번 인턴체험 활동을 통해 의회뿐만이 아닌 공무원 쪽으로 취업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의미 있는 인턴 활동이 되었고, 이런 기회를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제주도의회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



강성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은 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안'을 개정 발의했다.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및 재난현장에서 원활한 구조·구급 활동을 위한 개인보호장비 및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지원,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문을 신설하고 있다.

특히 조례안 제6조제6항을 신설해 각종 재난 및 화재, 구조·구급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활동 수행을 위해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강성민 의원은 “올해 1월 5일 평택시 소재 물류센터 신축 공사 현장 화재사고로 소방관 3명이 숨졌으며, 최근 동해안 산불화재 진압 동원된 소방관이 과로사로 숨지는 등 소방공무원의 활동 중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방공무원의 개인보호장비 및 예방접종 지원 등 보건안전 및 복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영희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사진·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에 '민·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스마트관광 '협의회 자문'(안 제7조의 2), 스마트 관광 진흥 및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 등 민간 참여의 촉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대표의원을 역임하면서 지난 12월 '스마트관광 아일랜드 구축을 위한 제주 스마트관광 육성 방안 및 파급효과 분석' 용역 보고회를 통해 스마트관광 추진 거버넌스, 관광 스마트화 단계적 추진과 협업 등의 정책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오영희 의원은 “제주 스마트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방형 플랫폼을 이용하여 공공과 민간, 소비자가 자생적으로 관광정보를 생성하고 공유하는 과정이 순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프라 확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개정의 방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고령농업인 복지향상 및 안정적 농업경영 지원 조례안



임정은 의원

농가의 소득이 감소하고,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영농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농수축경계위원회 임정은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대천·중문·예래동)은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도내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며, “도내 다른 산업군과 달리 70세 이상의 고령농업인들을 영농 현

장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으로, 최소한 위험한 영농작업은 안전을 위해 대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여의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농업인력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해 농사일에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고령농업인에 대한 안전성 관점에서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며, “조례안 제정을 통해 소외당하기 쉬운 초고령 농업인과 소규모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더욱 촘촘하게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박호형 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일도2동갑)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장수 노인에 대한 공경과 예우를 표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기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기 위한 장수기념물을 장수축하금으로 변

경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애 1회에 한해 100만 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박호형 의원은 “제주에는 100세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0세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지원이 미비하다. 이에 100세 인생을 맞이한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을 기원하고자 장수축하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제주에는 고령사회이며, 노인인구 비중이 증가하면서 읍·면·동 중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곳도 있다. 앞으로 장수축하금 이외에도 제주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김대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대진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도내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노인 돌봄 현안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 발굴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 근거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김대진 의원은 “현재 노인맞춤돌봄협의체는 양 행정사에서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다만, 이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는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로직원의 수가 명시되어 있는 항·삭제 및 노인맞춤돌봄 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 취약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촘촘한 노인돌봄안전망,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강충룡 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사진·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동·효돈동·영천동)이 제주특별자치도 돈내코 관광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목적 및 위치, 관리·운영의 위탁, 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의 감면, 시설사용 제한, 시설사용료 반환 사항들이 포함되었으며, 돈내코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 및 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강충룡 의원은 “최근 캠핑 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돈내코 계곡 및 캠핑장을 찾아오는 야영객이 급증하고 있어 돈내코 관광지 캠핑장의 안전과 체계적인 관리 운영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며, 돈내코 관광지 내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사용료 요금부과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평화와 인권의 역사 꾸준히 배우고 알려나갈 것”

서울 마곡중 학생회, 4·3활동 손편지 전달

서울 마곡중학교 학생회가 2월 28일 4·3활동 소식이 담긴 손편지와 제주4·3평화기념관 백비 로고가 새겨진 후드 티를 4·3특별위원회(위원장 강철남)에 전달했다.

마곡중학교 학생회는 강서 학생자치 연합 소속으로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에 의한 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하고 ‘더불어 배우고 성장하는 학생자치 활동’ 모형을 관내 모든 중학교로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학생들은 편지를 통해 2020년과

2021년 제주4·3과 관련된 활동 소식을 알리고, 강서구청의 지원을 받아 제주4·3평화기념관에 있는 백비를 형상화한 로고를 새긴 후드 티를 제작해 도의회로 보내왔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읍)은 “평화와 인권의 역사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제주 4·3을 비롯한 다양한 민주시민 활동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마곡중학교 학생회와 강서 학생자치 연합 소속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열정과 목소리가 담긴 편지와 백비가 새겨진 후드 티를 받아 들자마자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미래세대 전승이라는 목표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되었다”며, “더 많은 학생들이 제주 4·3의 역사를 통해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배우고 스스로 성장하는 자치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더 큰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을공동체미디어, 주민 권리 활성화돼야”



제12회 제주문화누리포럼

제주문화누리포럼(대표 강민숙 의원)은 2월 21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를 주제로 제12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우리나라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지만 그동안 전통적인 소통에 있어서 하향식의 정책 창달은 주민들까지 영향

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최근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고 주민들의 소통창구가 되고 있는 마을공동체 라디오, 동네신문을 비롯하여 빠른 SNS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의 이슈들이 물결로 올라오고 있다.

과거 신문이 차지했던 매체가 마을단위의 라디오, 영상,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확대되면서 마을 거점별 마을공동체 미디어로 자리매김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경우 10개의 단체로 전국 305개 단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지난 2020년 7월 16일 전국 31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 시민이용자분과에서 ‘커뮤니케이션 권리선언’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권리의 주제와 의미, 국가의 의무인 시민 커뮤니

케이션 권리보장 등 정책토론회를 통해 마을공동체 미디어가 커뮤니케이션의 권리로서 법적 근거 제시와 정책으로 더욱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전국마을공동체미디어연대 공동대표인 송덕호 마포FM 이사장은 ‘커뮤니케이션 권리와 마을공동체미디어, 그리고 제3섹터’를 주제로 마을공동체미디어 모델로서 마포FM운영 성과를 제시했다.

강민숙 대표의원은 “앞으로 마을공동체미디어가 마을공동체 회복 매개체로서 사회적, 경제적 성과에 기여할 수 있다”며, “다가올 마을공동체미디어 시대에 주민의 커뮤니케이션 권리로서 실질적인 주민 중심의 소통을 통한 정책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관광-천연염색산업 네트워크 구축 업무협약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 대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3월 18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관광산업과 천연염색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에서는 지난해 11월 ‘제주천연염색산업의 새로운 두드림과 도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제주천연

염색기업지원 사업단(단장 홍희숙)과 (사)제주관광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형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관광미래성장포럼(대표의원 오영희)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제주천연염색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 각 기관은 제주관광산업, 제주관광기념품산업, 제주천연염색산업의 발전과 관련 상호 긴밀하게 협력하게 된다.

오영희 의원은 “협약 체결을 통해 제



주관광산업과 천연염색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기

관 간 상호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청탁금지법 Q&A



Q

공공기관인 ◇◇연구소는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친목단체인 ◇◇친목회를 운영 중인데, 동 친목회가 매년 연구소 직원들 중 우수직원을 선발하여 규약에 따라 상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는 '공직자 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 등이 구성원을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친목단체에서 제공하는 사안과 같은 금품 등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위해서는 상기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 & 법령뉴스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Q

유치원생 아들이 매일 집 앞 놀이터를 이용하는데 놀이기구들이 튼튼해 보이지 않아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들은 안전 점검에 특별히 신경을 더 쓰나요? 혹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그네, 미끄럼틀 등 아이들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기구는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으로 제품검사 등을 거쳐 안전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놀이시설은 안전을 위해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유지관리 등의 안전점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놀이시설에서 아이가 다쳤을 때에는 즉시 ☎119와 관리주체에 신고해야 하며,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안전인증”이란 제품검사(어린이제품을 시험·검사하는 것)와 공장심사(제조설비·자재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심사하는 것)를 모두 거치거나 제품검사만을 거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8호).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을 말합니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

☞ 어린이 놀이기구를 포함한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기한 제주어 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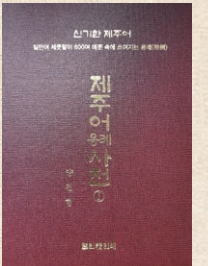
무똥

(명사) 출입구나 그 가장자리 부근

〈예문〉

허운데기도 노랑히고 눈도 노랑흔 젊은 여주가 찻집 무똥더레 뽀렷닥뽀렷닥 흐느디 ‘구구’가 와리멍 들어산다. “아이고 Jane! 썰라 썰라 썰라” “Oh, gugu, 썰라 썰라 썰라” ‘구구’의 양지가 해양혀지명 중은중은한다. “아이고 이 노릇을 어뎡호코”

- 허운데기 : ‘머리카락’의 낮은 말
- 노랑흔 : 노란
- 여주 : 여자
- ~더레 : ~쪽으로
- 뽀렷닥뽀렷닥 흐느디 : 보았다보았다 하는데
- 와리다 : 지나치게 서두르다
- 들어산다 : 들어선다
- 양지 : 얼굴
- 해양하다, 하양하다, 헤영하다, 헤영하다, 하양하다, 히영하다 : 하얗다
- 중은중은하다 : 중얼중얼하다
- 어뎡호코 : 어찌할까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연간 의회운영 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 처리 안건
계	10회	총 141일 ·정례회 2회/58일 ·임시회 8회/83일	본회의 33일 상임위 54일 예결위 18일 공휴일 36일	
2월	제402회 임시회	2.8.(화) ~2.17.(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6일 공휴일 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결산검사위원 선임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3월	제403회 임시회	3.22.(화) ~3.30.(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공휴일 2일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4월				
5월				
6월	제404회 임시회	6.14.(화) ~6.21.(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공휴일 2일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7월 ~ 8월	제405회 임시회	7.1.(금) ~7.6.(수) (6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공휴일 2일	·의장·부의장 선거 ·제12대 의회 개원식 ·원구성 등
	제406회 임시회	7.12.(화) ~7.22.(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7일 공휴일 2일	·주요업무보고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제407회 임시회	7.26.(화) ~8.5.(금) (11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예결위 4일 공휴일 2일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408회 제1차 정례회	9.16.(금) ~10.12.(수) (27일)	본회의 8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공휴일 10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승인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0월	제409회 임시회	10.18.(화) ~11. 9.(수) (23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5일 공휴일 6일	·행정사무감사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1월 ~ 12월	제410회 제2차 정례회	11.15.(화) ~12.15.(목) (31일)	본회의 8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공휴일 8일	·도정·교육 행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12월	제411회 임시회	12.19.(월) ~12.23.(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제2회 추경예산안 ·안전 처리 ·현장방문 등

※ 긴급 회의소집, 회기연장 운영 등을 위한 예비일: 9일
※ 연간 의사일정은 현안사항 발생 등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미래 일자리교육센터가 필요한 제주

요즘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지난 2016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이후로 전 세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무한경쟁체계에 돌입했다. 제4차 산업혁명은 경제혁신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빅데이터(BD), 로봇공학, 가상현실, 모바일, 클라우드 등 전 산업부문의 혁신으로 우리 삶을 바꿔가게 된다. 특히 생활환경이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메타버스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세계 시장과



박 은 경
교육위원회
의원

**‘미래일자리교육센터’
청년 인구 유입, 수입증대 등
혁신교육의 파급 효과 창출
노후복지까지 개선!**

경쟁하며 이런 산업구조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래 혁신 선도하는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 직업군 전반에 걸쳐 재교육과 혁신교육이 뛰따라야 하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새로운 혁신기술에 대한 교육을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계획과 행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가칭 ‘미래일자리교육센터’에서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관과 연계

해 미래일자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도록 하며 행정과 교류하면서 중앙정부 부처의 미래기업 일자리교육 시스템을 이양받아 지역사회에 보급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지역에서 미래일자리교육만 제대로 추진된다면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정착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게 된다. 이는 바로 청년 인구 유입으로 이어져 세계 수입을 증대시키고, 전 세대에 혁신교육의 파급 효과를 창출, 노후복지까지 개선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다.

화순항의 꿈과 희망을 담다

화순항은 천혜의 미항으로 1991년에 제주도 남부의 중심 연안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그동안 해군기지 유치 논란, 국제 수준의 거점형 마리나항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만 무성할 뿐 정착 현실화된 것이 없는 실정이다. 사실 민선 6기를 거쳐 7기를 지나오면서 약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에서는 화순항을 세계적인 명소, 세계 최고의 요트대회 경기장으로 만들겠다는 허언장담에 그치고 있다.

현재의 화순항은 총사업비 549억 원이 투입되에도 불구하고 서부지역에 한정하여 모래와 시멘트, 건축자재 공급항만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있어 마을주민들에게는 도움이 안 되고 있다. 특히, 도민의 제1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조 훈 배
환경도시위원회
의원

**미항이자 남부 중심 연안항
청사진 무성할 뿐 실천 없어
적극적 지원·개발로 희망을**

생산하는 제주삼다수 육지 이송은 화물선을 통해 한 두 차례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관리 연안항인 화순항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형선망어업 전진기지 조성’ 역시 2008년 이후 여전히 답보상태다.

또한 도정에서는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수산물산지복합유

통센터 건립 TF를 구성·운영하고 비관리청항만공사 연장허가를 수차례 건의했으나 결국 무산돼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역에서는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현재 보유한 2만 7,800㎡(8,427평)의 어항구를 시의적절하게 활용하면 부산공동어시장에 버금가는 황금어항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통해 연간 약 20만 t의 물동량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수요공급이 가능하고, 수산물 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화순항이 ‘불모지’에서 ‘황금어항’으로 재탄생된다면 지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첫째, 장기 미활용 된 유허공간을 활용하여 생동감 있는 화순항으로 재탄생될 것, 둘째, 신선한 수산물 공급을 통해 안정적인 물동량 확보를 통하여 소득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다. 셋째, 대규모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및 관련사업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화순항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어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추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용어가 일상에 자주 등장한다.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이란 미디어의 과다 사용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스스로 미디어 사용을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이런 현상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청소년의 외부활동이 제한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해 가족 간 소통의 부재가 일어나고, 학교에서의 부적응, 무엇보다 일상생활에서도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학교나 가정에서 온라인 교육환경이 빈번하게 이뤄져 스마트기기 사용



변 희 정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전 연령에 걸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역기능 해마다 증가**

이 보편화되면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연령에 걸쳐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역기능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스마트쉼센터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이

어 올해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예방교육 강사와 가정방문 상담사 13명을 선발했으며, 올해 말까지 제주도민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학교)을 방문할 방침이다. 특히 일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총 8회의 전문상담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미디어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과의존 예방교육이나 상담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제주스마트쉼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센터로 문의(064-723-2670)하면 된다. 인터넷·스마트폰 예방교육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미디어를 사용함으로써 미디어 과의존 상태를 해소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 8개월 여정 마무리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지원 특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강민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가 3월 22일 오후 2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8개월간의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그간의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도의회 차원에서 남북교류 관련 사업을 점검하고, 제주형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을 위한 정책발굴, 평화·통일에 대한 도민 공감대 확산 등 향후 남북평화 협력 시대를 대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보고(제주도 및 도 교육청)를 통한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통일교육 등에 관한 사업 점검 및 발전적인 추진 방향 제시, (사)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남북교류 관련 정보 공유 및 아젠다 발굴, 도내 9개 민간단체와의 공동 간담회 개최를 통해 정책 공유 및 유기적인 협력 관계 구축 등이다. 또 2030세대의 통일 의식 함양 및 도민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주지역청년위원회와 공동 간담회 개최, 제주형 남북교류협력의 미래정책 아젠다 발굴, 제주 미래세대의 통일·평화 의식 함양 방안 연구,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관련 조례 개정 추진, '남북통신 연락선 복원' 환영 성명 발표 및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국전쟁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규탄 및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강민숙 위원장은 “남북·북미 관계의 경색국면과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큰 것이 사실이나,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된 제주가 선도적으로 남북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향후 남북이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해 7월 21일 구성되어, 강민숙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진 부위원장, 고은실 위원, 김경미 위원, 김장영 위원, 박원철 위원, 양병우 위원, 이경용 위원, 현길호 위원이 참여했다.



2022 상반기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수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학생 인턴십 수료식이 2월 28일 의장실에서 열렸다.

인턴십에 참여한 제주도내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업무를 이해했으며, 특히 자치입법 및 정책자료 조사를 통해 입안 실무를 경험할 수 있었고, 본회의 방청으로 실제 의정활동 결과가 어떻게 이뤄지는지를 체험했다.

특히 대학생의 의정활동 참여로 지

방자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의견과 의정 실무를 직접 경험하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의미 있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도내 대학생의 지방자치 역량을 높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 1월부터 두 달 동안 대학생 체험활동 인턴제를 운영했다.

제주정책 현안 연구성과 ‘정책연구’ 제5호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제주의 다양한 정책 현안에 대해 연구해 온 성과물 ‘정책연구’ 제5호를 발간했다.

‘정책연구’ 제5호는 제주의 비전과 정책대안·재정전략을 위해 경제, 물산업, 교통, 공기관, 취업/일자리, 교육, 재정 및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 등에 대한 기획연구와 의정활동 지원 관련 연구자료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정책연구’ 제5호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좌남수 의장과 도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정책대응 분석자료

21편이 수록됐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 발생이 제주경제와 세입에 미친 영향과 대응, 제주 산업구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제주 분산에너지 활성화 과제 및 수소 경제 대응, 제주지역 버스 운영체계 개선 방안,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 공기업 결산 경영 성과 평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 등이다.

‘정책연구’ 제5호는 도민, 유관기관, 국회 등 중앙부처, 전국시도의의회, 언론사 등에 배포되어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모델 구축과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방안 등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 형성 및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이해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정책연구를 통해 미래세대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 제주의 자치 역량강화와 함께 자주재정권 제고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효율적인 경제·산업·재정 운영이 요구되는 만큼 정책 연구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소득개선의 효율적인 대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강원 산불 피해 돕기 성금 전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좌남수)는 3월 21일 의장실에서 경북·강원 지역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성금 6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42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된 것으로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돼 생계·주거 지원, 구호 물품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매년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 성금 기부에 정

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외에 2019년 강원도 산불 피해 이재민 돕기, 2020년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 돕기 등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산불로 피해가 큰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피해를 복구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관심이 많은 많은 분들의 성금 기부 동참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